©ヨールキ・パールキ

38세
비정규직.

또다시 한층
집세가
저렴한 방으로
이사를 했다.

의욕은 없지만
성욕은 있다.

다행히도
전과는 없다.

헉!!

!!

…,

아아,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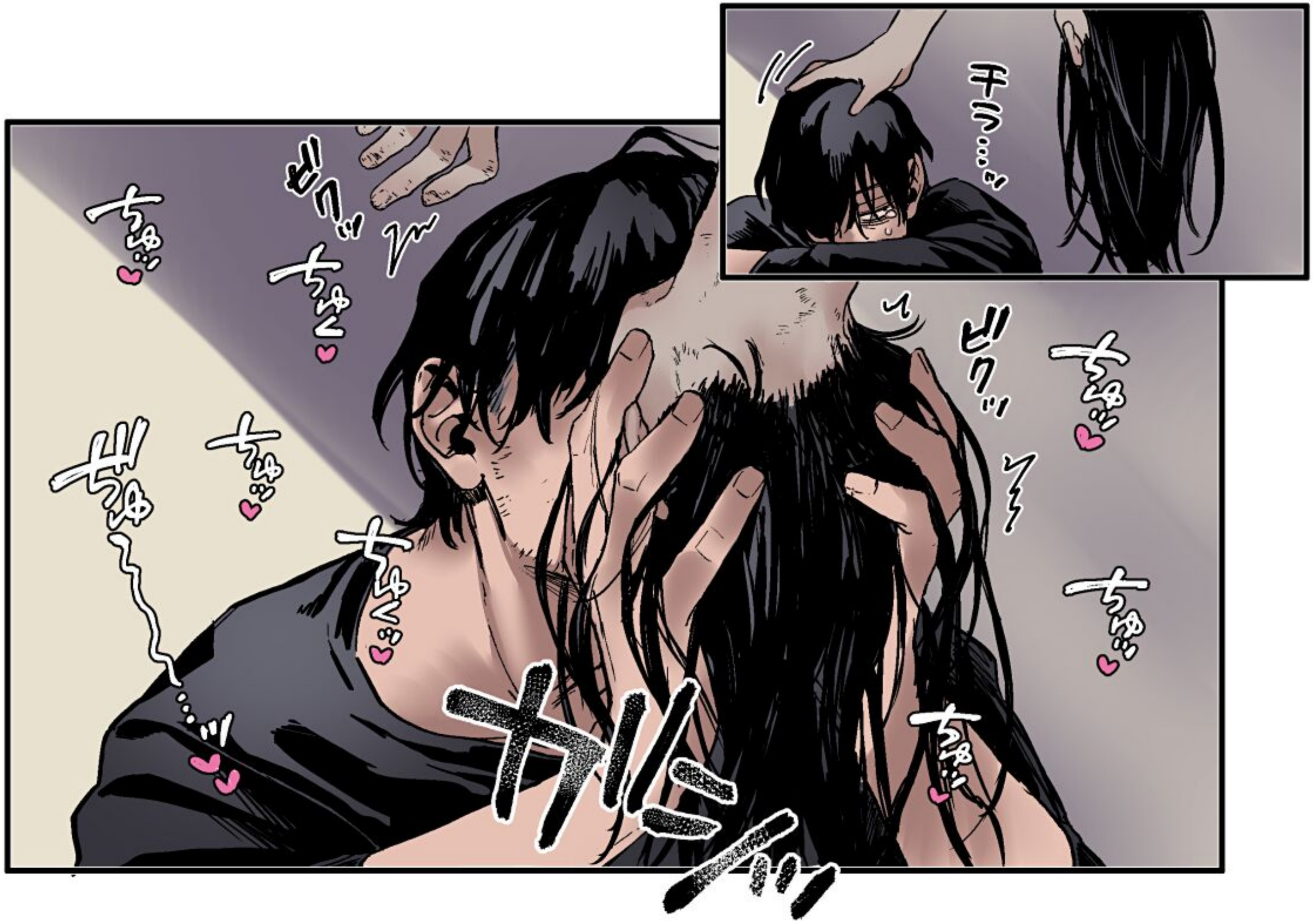
너도
외로운
사람이야?

그만
둘래….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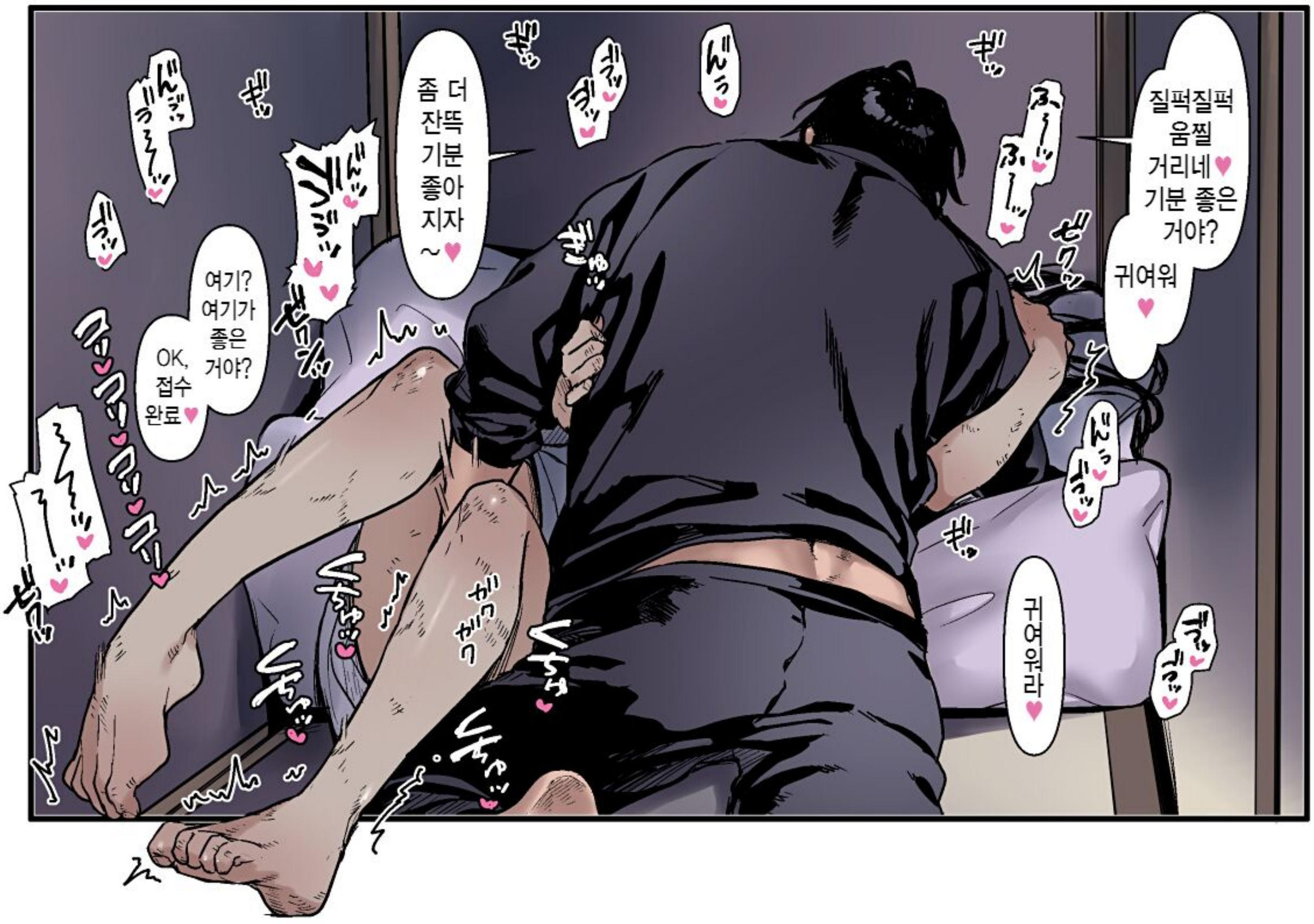
싫어…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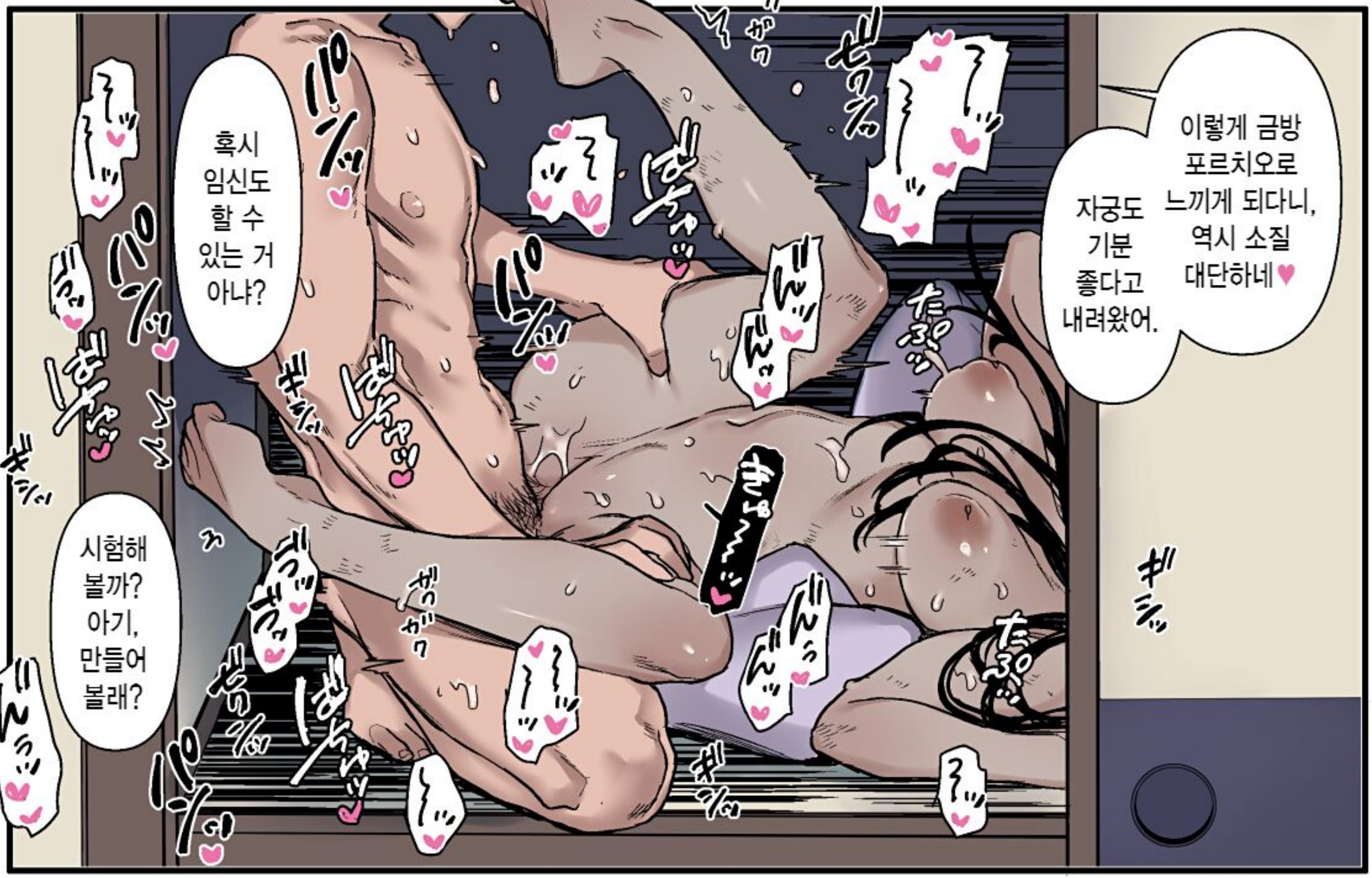

チラ…
ちゅ♡
ちゅ♡
ちゅ♡
ビクッ
ちゅ♡
ちゅ♡
ちゅ♡
ちゅ♡
ちゅ♡
ちゅ♡
カリ…

■3일 후

■ 일주일 후



■1개월 후


이렇게 금방 포르치오로 느끼게 되다니, 역시 소질 대단하네♥
자궁도 기분 좋다고 내려왔어.
혹시 임신도 할 수 있는 거 아냐?
시험해 볼까? 아기, 만들어 볼래?

음…

끄응…

조금 가르침 받아버린 K코씨는 이따금

이렇게 병든 아저씨의 감퇴된 성욕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찾아오기 시작 했다.

거기서 뭐하는 거야, K코씨…?

방금 전까지 잔뜩 했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건 역시 무리야!

우우…

아, 진짜…. 발로 하는 것도 능숙해져 선…! 하아…!

우우ㅅ…

저기, 밤마다 유두 애무하는 거 좀 그만둬 주라~

뭔가 점점 개발이 진행 되는 거 같다고…!

우우!

처음엔 자지 보는 것도 부끄러워 했는데

엄청 야하고 귀여워 졌네~

우우…

생전에도 한 번 빠지면 끝까지 가는 타입이었으려나.

…우우

아무래도 대충 그런 것 같…, 네.

하아…!

자지 좋아해?

그럼 나랑 섹스 하는 것도 좋아?

우우…!

기분 좋아서 매일 하고 싶은 거야?

우ss♥♥

아~ 슬슬 넣고 싶네…. K코씨 질내에서 찌걱찌걱 하고 싶어.

아이 만들기 할까?

역시 이쪽에서 확확 밀고 나가면 부끄러워 하나….

우우…

하♥

두 사람의 방

201 202 203

상황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머리

•외골수
•샤이
•쉽다
★혈관

?!

지지…

손 분명 끝방인데 안쪽이 어딘가로 이어진 다락방

다락의 괴이 K코씨

(읽는 법은 딱히 미정)

키이…

K코와 우울 총각

©ヨールキ・パールキ

K코와 우울총각

• 고통받는 일 없이 죽고 싶다 하지만 귀찮아서 일단 산다

• 영감 소유 흥미는 딱히 X

• 저주받아 어느새 죽어도 그것대로 좋을지도

• 20대 직장인 시절

38세 프리터

우울총각

토츠모토 유우시

전직 샐러리맨

취미 ↳ 파칭코

HOPS

벽장

다다미방

창고

현관

욕

• 이후 알바만 전전

©ヨーイチ・パーイチ

K코와 우울총각

엑스트라

출장 업소녀
싱글맘
자녀 있음

딱히 단골 같은
관계는 X

모유가
나온다

스님

제대로 된
스님

아미타?..

뭐,
그냥
양분으로
밖에 보지
않아서.

???

어느새부턴가
201호에 있었다
COOL

2편 출연 예정
(결국 안
나왔지만)

관리인
츠케다 씨

©ヨ-ルキ・パ-ルキ

오늘은
목욕을
하겠습니다!

!!

우왓!! 도망치지 마!!

잠깐!! 스톱!!

이어!!

우우!!

다락방 들어갔다 오면 K코씨 왠진 몰라도 깨끗해져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씻긴 해야 할 거 아냐!

우아아!! 이어어!!

자자, 금방 끝나니까~ 야한 일이라도 생각하면서 버팁시다…!

우아~… 우…

우우…

아우… 우…

우…

장하다, 장해~ 그럼 이제 몸만 푹 담갔다 나갑시다!

뿌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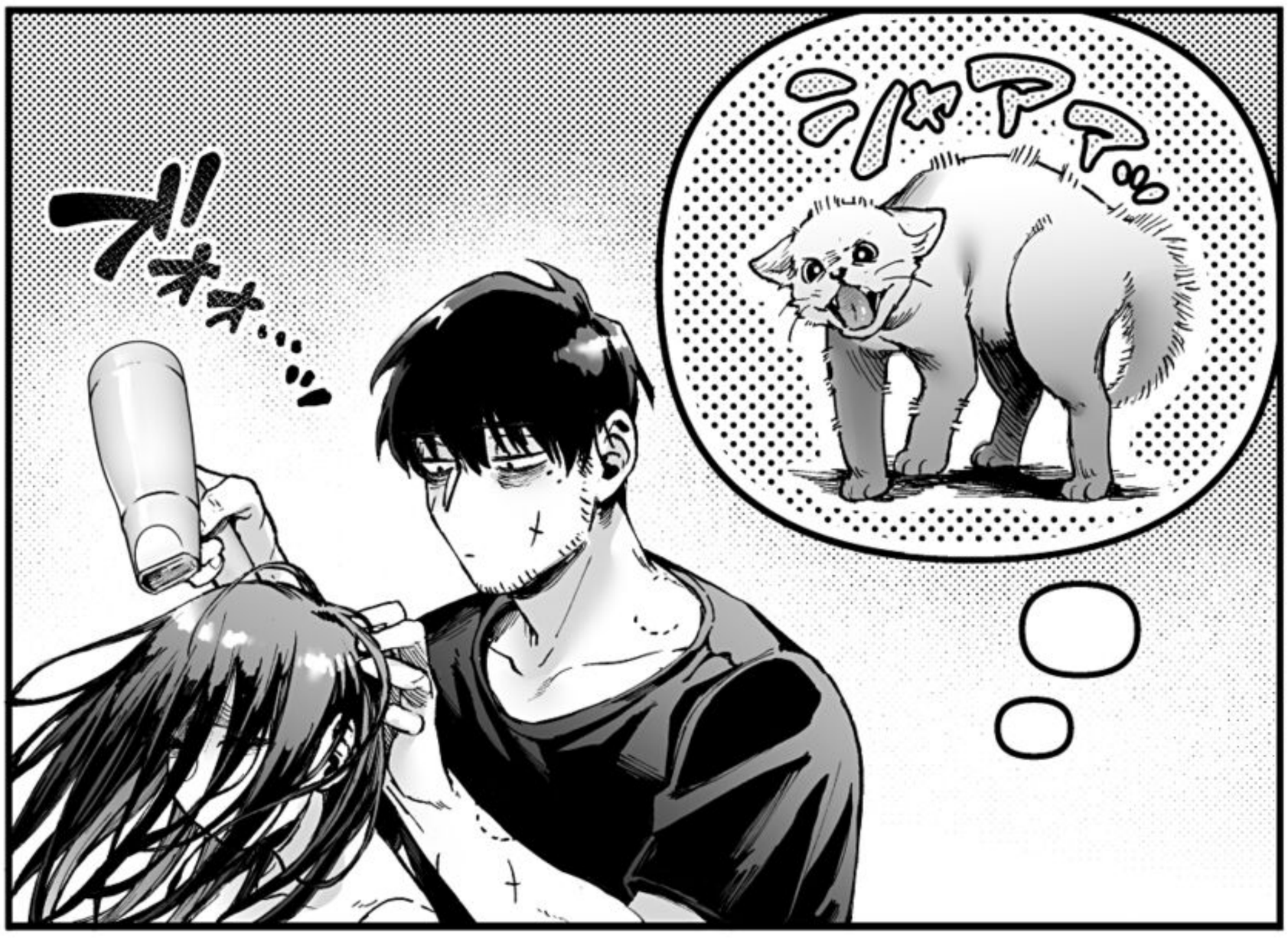
우아웃!!

꺄아아!!

우우우…

아크로바틱 입욕 거부

찌이이이
찌이
찌이
찌


ニパーアアoo
ゲオオオ……

？
？
……

허리가 막 들리네? 안쪽도 엄~청 움찔거려♥ 기분 좋은 거지?

갈 것 같아? 좋아♥ 마음껏 가버려 ~♥

호라, 호라, 여기, 약하지 ~?

그렇게 잔뜩 실금할 정도로 기분 좋은 거야?

표정 숨기면 안 돼~

띵동~

택배 왔습니다~!

…

ずちゅ…

ぐりぐり…

ぐぐ…

ずちゅ…

ぐりぐり…

ぐぐ…

ずちゅ…

ぐりぐり…

ぐぐ

집에 없나 보네….

띵똥

딩동딩동

없어?

없어?

없어?

아아~
K코씨 때문에
얼굴 다
젖었잖아.
빨리 핥아줘♥

키잇

우…

자자,
츄~♥♥

음

음음음!!

쭈쭙쭙

쭈쭙쭙

쭈쭙쭙

쭈쭙쭙

쭈쭙쭙

아직도
허리
후들거리네.
귀여워.

철컥

철컥

철컥

야한 즙
계속 나오네♥
그만큼 기분
좋은 거구나♥

파들파들
가버리는
포인트 이제
외웠다고♥
설마 허리
들리고 있는 거
모르는 거야?
역시 귀여워♥

하아 하아

히읏 상읏

우우~♡

우앗♡

도망가면 안 돼~

이제 조금만 더… 할 수 있지…?

하아…!

하앙 싱읏

오오오오♡

하아 하아

우읏

으우♡

우웃♡

하아…! 또 간다…!

우와…! 안쪽 엄청 꽉 조여…!

코타츠를
꺼냈다.

가다

추워….

이건 또
꽤나
좋으려나….

어…

어…

우?

우우!?

뭐?

본인이
얼마나
야한 몸인지
자각이
없는
건가….

못
참겠네
….

본인이 야하단 사실을 알아줬으면 싶기도 한데, 그냥 이대로 있어줬으면 싶기도….

웃♥ 웃♥

헷

우웃♥

하아

우앗♥ 앗♥

헉!!

하우웃♥

헷

웃♥ 웃♥

하아

헷

어쨌든 다른 남자한텐 절대로 안 들키도록 해야…!

헉!!

우우♥

헷

후웃~~♥

겨울용 한텐을 사줬다.

K코씨, 따뜻해?

우!

겁나 귀여워….

하아, 귀찮다….

설거지 엄청 밀렸네….

카챠

카챠

야아아

어라, K코씨?

무슨 일이야?

우우

A…

뭐야?

엥?

흐햇!

간지럽다구~

뭐야, 뭐야!

꼬옥

꼬옥

꼬옥…

꼬옥…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려는
생각일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아!

어째선지
요새 K코씨는
내 유두를
집중적으로
괴롭혀 온다.

굴복할
수는
없단
말이지!

으읏…!

그래, 절대
굴복할 수는…,
크읏…!

[redacted]

[redacted]

[redacted]

으우웃♥

역습당할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으응? 아직 저항하는 거야?

유감이지만 K코씨가 하는 저항, 대부분 역효과라고?

우웃♥ 으웃♥ 후웃♥

후웃 흐그웃♥ 으그웃♥

후웃♥

아직 멀었어, K코씨~?

우~~

그냥 꽁냥대고 싶어진 것뿐

건물 구조상 따져 봤을 때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만큼 공간이 나올 리가 없는데

얼마나 깊게 이어져 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 구만….

저기, K코씨!

한번 그쪽 가봐도 돼?

푸압!?

끄아아

으으, 안 된다는 건가….

우!

그런데 K코씨, 생각해 보니…, 애초에 준비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나?

우우!

……

!!

흐ㅅ...

으으으...

…유령인데
어디 이마
부딪치기도
하는 거야?

니야
니야
~
~
~
정 그러면
손전등이라도
사올까?
우…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지내지
말랬잖아.
우우…
앞으론
매일 같이
자자?

※아저씨의 옷을 입은 K코씨

ビクッ

ゼクッ

ふにふにふに

번외편 이후 시점

ヨールキ・パーパキ

ゆんゆんゆ

ブンッ

ブンッ

んゆんゆん

ぱっ

ぱっ

ぱっ

チカッ
チカッ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はッ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ぢゅぢゅっ

ヨールキ・パールキ

ヨールキ・パールキ

뭐 보고 있어, K코씨?

우우—…

냥이?

우—우…

ミル…

ヨールキ・パールキ

유부녀 야한 복장

…

앞치마 어울리네. 귀여워.

직장인 시절 취득한 방어 태세

이건 어쩔 수 없나.

K코씨는 물이 무섭다.

ヨールキ・パールキ

ぐぢゅ
ぐぢゅ
ぐぢゅ

K코씨는

그냥
평범하게
잔다.

ヒ

ヒ

ヒ

저거,
내 이불
…?

©ヨールキ・パールキ

ELKI PALKI

2022☞2023

50%OFFSALE

12.30~1.3